



SK인천석유화학의 벚꽃동산

/연합뉴스

SK·인천, 벚꽃축제서 ‘나무심기’ 캠페인

SK인천석유화학이 인천관광공사·유엔환경계획(UNEP) 한국협회와 함께 ‘SK 행복나눔 벚꽃축제’ 개막에 맞춰 민관 공동 친환경 캠페인 ‘위·그린·인천(We Green Incheon)’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우리(We)의 작은 실천이 더 깨끗하고 푸른(Green) 인천을 만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캠페인 참여 방식은 9~14일 진행되는 SK인천석유화학 벚꽃축제 관람객들이 사내 벚꽃동산 입구에 설치된 이벤트 부스의 포토존에서 캠페인 참여 인증샷을 촬영하거나, 자원봉사자의 안내로 GPS 기반 운동 애플리케이션인 ‘트래글’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자동으로 나무 한 그루가 기부된다.

부산시, 기술창업자에 ‘경력확인서’ 발급

전국 최초 ‘기술창업 지원조례’ 제정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오는 10일부터 공포·시행한다.

시는 9일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며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 미래산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을 고려해 선도적으로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갈 스타트업 육성 기반 조성과 지원을 위한 이 조례와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 기술창업의 범위(제2조 및 별표) ▲ 기

술창업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주요내용(제4조) ▲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방식(제6조 및 제7조) ▲ 기술창업 지원사업(제8조) ▲ 창업촉진지구 지정과 지원 내용(제9조) ▲ 기술창업 경력확인서 발급(제11조) 등이다.

이중 ‘창업촉진지구 지정과 기술창업 경력확인서 발급’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로 알려졌다. 기술창업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창업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지구 내의 창업자에게 임대료 보조·자금지원 연계·마케팅 등을 지원하며, 청년창업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게 했다. /부산=최인락 기자 remark@

장성군 ‘일본뇌염’ 모기 감시 나선다

장성군보건소가 일본뇌염을 예방하기 위해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연계하여 ‘일본뇌염 예측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일본뇌염을 유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의 출현과 발생 밀도를 감시하는 사업이다.

군 보건소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관내 대표지점 1곳에 유문등(기를 유인하는 등)을 설치하고 매월 3~4회 모기를 채집한다. 채집한 모기 중 작은빨간집모기의 출현 시점, 모기종류별 개체 수



장성군보건소 관계자가 모기유문등을 확인하고 있다

와 발생 밀도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전남 장성=봉채영 기자

상담·훈련·취업 ‘원스톱’ 서비스

전남도, ‘일자리 재단’ 설립 추진

내년 하반기 재단 출범이 목표
6곳 재단 통합해 유기적 협업

전남도가 도청과 도 산하기관에 흩어져 있는 고용업무 기관과 인력을 한곳에 모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칭 ‘전남일자리재단’ 설립에 나섰다.

전남도는 9일 일자리 정책 연구 수립 집행기능을 하나로 묶어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인 전남일자리재단 설립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협의와 재단설립 타당성 검토, 주민 의견 수렴, 임직원 모집, 설립허가 절차 등을 고려하면 재단 출범은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한다.

현재 전남도청 건너편에 자리를 잡은 ‘일자리 플랫폼’ 참여기관 6곳을 재단으로 통합해 원스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일자리 플랫폼에는 전남고용혁신추진단·전남일자리종합센터·창업지원종합상담센터·전남창업기술지주회사·일자리평가분석센터·청년마을로사업추진팀이 자리를 잡고 있다.

하지만 도내 고용 일자리 수급의 예측과 사업발굴 전문기관과 인력이 부족한 데다 일자리 사업을 관리할 컨트롤타워도 부재해 일자리 플랫폼 참여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남도는 법인격을 갖춘 일자리 전담기구를 설립해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재단을 통해 일자리 사업의 발굴 기획 실행 평가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구와 인력을 갖춘 계획이다.

전남형 일자리 정책 연구와 정부 일자리 사업 총괄 수행, 맞춤형 취·창업

지원, 역량강화 고용유지 지원 등의 업무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일자리재단에서 심층상담·진로설계·직업훈련·집중 취업알선까지 맞춤형 통합 취업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타 지역 경우 경기도가 2016년 일자리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울산시·충남도·경북도는 일자리기구 설립용역을 마쳤고 강원도는 용역 중이다.

전남도는 올해 하반기까지 행정안전부와 1차 협의를 한 뒤 재단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마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 주민 의견 수렴·행정안전부 2차 협의·조례 정관제정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임직원 모집·설립허가 등기를 마쳐 재단을 설립한다는 구상이다.

/전남 무안=봉채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경기 6개市, ‘미세먼지’ 손에 손잡고 막는다

평택시 등 공동 협의체 구성해 대응
평택당진항·화력발전소 등 대책 세워

평택시는 화성시·이천시·오산시·여주시·안성시 등 6개 시와 미세먼지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대응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 남부권에 위치한 이들 6개시는 2018년도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80일을 초과하고, 지리적 위치로 볼 때 평택·당진항 및 충남 화력발전소 등 공동된 원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8일 모인 6개 시 자치단체장들은 미세먼지의 원인은 광역적인 문제로, 공동연대를 통해 서로의 역량을 결집하여 인근 화력발전소 및 제철소, 에너지시설, 평택·당진항 등 경기도 남부권의 차별적 미세먼지 원인들에 대



경기남부권 평택·화성·이천·오산·여주·안성 6개 단체장은 지난 8일 평택시청 대화협력실에서 미세먼지 공동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해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해당 지역 국회의원 및 충남 시·군과도 상호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체장들은 “미세먼지의 원인이 대·내외적으로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개별적인 노력은 물론, 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대외적인 문제에 공동 대응이 필수라고 의견을 모았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깨끗한 도시 조성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경기 평택=이보현 기자 bhlee7777@

득량만·강진만 개발에 4개 지자체 뭉쳤다

보성·고흥·장흥·강진 4개 郡 구성

전남 득량만과 강진만의 발전을 위한 득량만강진만권 연안보존개발조합(이하 개발조합) 설립이 추진된다.

9일 보성군에 따르면 득량만강진만권 행정협의회(공동회장 김철우 보성군수·신경균 보성군의회 의장)는 최근 정기회의를 열어 득량만과 강진만에 인접한 지자체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합인 개발조합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보성·고흥·장흥 등 3개 군은 2015년 12월 장보고행정협의회를 구성했으며 지난해 강진이 참여하면서 4개 군이 득량만강진만권 행정협의회로 확대됐다.

4개 군은 득량만과 강진만권의 보존

과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해 조합을 구성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하고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나섰다.

6000만원을 들여 ‘득량만강진만권 청정연안만보존개발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한 뒤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개발조합을 설립하기로 했다.

개발조합은 득량만·강진만권의 지역특화 사업을 선도하고 청정연안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도로, 교량, 항만 등 SOC 확충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트래킹 코스 등 해양관광 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농축산물 통합 브랜드를 만들고 유통이나 마케팅을 활성화하는 등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도 펼친다.

/전남 보성=문성환 기자 m8527188@

장흥군

마약류 밀경작 집중단속

장흥군이 밀경작, 밀매 등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장흥군과 강진군, 광주지방검찰청장흥지청이 함께 실시한다.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밀경작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탐문수사와 현장당사를 통해 철저히 단속해 불법양육 및 대마를 뿌리뽑을 계획이다. 현행법으로 허가 없이 양귀비의 종자, 종묘를 관리 수수 또는 그 성분을 추출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대마를 신고 없이 재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전남 장흥=위지훈 기자 jh2255@

오늘의 날씨

4월 10일 (수)
음력: 3월 6일

수도권 날씨
9~5°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6:05 | 해질 / 19:02

연천 5/10, 동두천 5/11, 가평 4/10, 양평 5/10, 용인 7/9, 수원 7/9, 평택 5/10, 인천 6/9, 서울 5/9, 파주 5/11, 백령도 5/10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